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10. 18	10. 25	11. 01
대 표 기 도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황희순 집사	유미경 집사	정용현 집사
헌 금 위 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 내 위 원	박재기 집사	박재기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 성경 읽기-영의 양식으로 삼시다(사41~66장)
- 구역장, 기관장, 청년 리더들께서는 소속 성도들의 안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창립 | 1983년 10월 23일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추수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형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새번역) .....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 542장 ..... 다같이
- 기 도 Gebet ..... 박재기 집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 신 28 : 1 - 6 (구p303) ..... 박재기 집사  
(5.Moses 28:1-6)
- 설 교 Predigt ..... 복을 주는가? 구걸하는가? .....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 543장 .....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 (새 가족 환영) .....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황희순 집사

##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그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노릇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서 내 힘으로 닦친 일들을 처리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존재인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놀라고 날 땀 수 밖에요. 그러나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아야 합니다.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한눈에 문제가 들어오고 해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잡다한 일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심각한 일이 없더라도 툼툼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사는 것이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신우인 목사  
(포이에마예수교회 담임)

\*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진다. - Rick Warren -